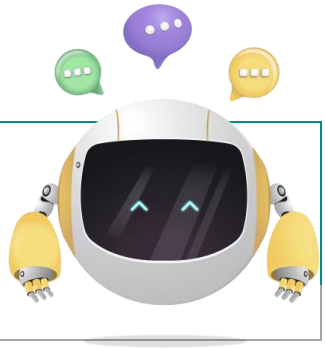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4.03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앤스로픽 신모델에 대한 문서 유출로 사이버보안 변동성 증가

사이버보안

- 앤스로픽의 CMS 설정 오류로 미공개 자료 약 3,000건이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스토어에 노출, 그 중에는 "Claude Mythos"라는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초안 블로그 포스트 포함.
- 앤스로픽은 이 모델이 기존 최고 성능 모델 Claude Opus 4.6을 훨씬 상회하는 새로운 티어인 'Capybara'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 발견하고 악용할 가능성을 시사
- AI가 기존 보안 벤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AI 기반 사이버 공격 속도를 기존 보안 솔루션이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유출건에 대한 뉴스가 발표된 날 사이버보안주 급락. 이후 주요 대형 보안주 중심으로 반등
- 클로드 미토스 유출건은 AI가 사이버 공격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보안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필요성 부각
- AI 기업 보안 툴이 성과를 낼 경우 기존 주요 보안업체로 향하던 보안 예산이 분산되거나 가격 압박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그러나 대형 보안 업체들의 진짜 해자는 기술력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기업의 인프라 시스템에 깊숙하게 연동되어 있고 이들 대형 보안 사업자가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AI 공격 대응력을 갖출 수 있어 AI 랩의 잠재적인 시장 진입에 대해 강력한 방어력 보유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상장 절차 본격 돌입,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

- SpaceX가 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돌입. 주당 가격과 매각 주식 수 등 세부사항은 향후 추가 서류를 통해 공개될 예정. Bloomberg에 따르면 SpaceX는 이르면 올해 6월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 평가액은 1.7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주력 사업인 발사체 서비스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매출액은 2025년 1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스타링크 가입자 급증을 바탕으로 2026년 매출액은 24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xAI 합병 기준 2026년 매출액 전망치 290~300억을 추정할 경우 IPO 목표 기업가치 1.75조 달러는 PSR 약 58배 수준.
-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당부분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 일론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테마를 주도하기 위해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용 자체칩 생산을 위한 테라팹 프로젝트와 우주 컴퓨팅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높아 실현되기까지 머스크 구상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 '역사상 가장 기대 받는' 스페이스X IPO는 우주 산업이 주류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우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

GE버노바(GEV.US): 분할 상장 후 2년, 신고가 지속의 비결

3월 S&P 100 편입 효력 발생

- GE 버노바 주가는 YTD +25.2%, 1년간 +168.5% 상승하며 섹터(산업재, YTD +1.3%)와 지수(S&P 500, -7.1%)를 큰 폭 상회했으며 신고가를 지속 경신
- 주가 상승 배경은 크게 3가지
- 1) 3월 23일부터 S&P 100 지수 편입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 및 인덱스펀드 자금의 유입이 증가
- 2) 3월 18일 BofA 글로벌 산업재 컨퍼런스에서 가스터빈 수요 지표 가속화와 마진 증가를 확인
- 3) 800V DC 전환을 겨냥해 하이퍼스케일러와 SST(Solid-State Transformer)를 핵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계약 가시성 높음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마벨에 20억 달러 지분 투자

-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MRVL)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NVLink Fusion 플랫폼을 통해 마벨의 커스텀 XPU 및 고속 네트워킹 솔루션을 자사 AI 팩토리 생태계에 통합하는 파트너십을 체결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셰브론·Engine No. 1과 70억 달러 규모 서부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독점 협상

- 마이크로소프트가 셰브론 및 행동주의 투자펀드 Engine No. 1과 서부 텍사스 퍼미안 분지 인근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 전력구매계약(offtake) 독점 협상에 진입

메타(META.US): 루이지애나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 10기 투입

- 메타가 27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Hyperion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3기에 더해 7기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 총 10기 합산 발전 용량이 약 7.5GW에 달해 사우스다코타주 전체 전력 용량을 상회하는 수준

오라클(ORCL.US): AI 데이터센터 투자 재원 확보 위해 최대 3만 명 규모 대량 감원 착수

- 오라클이 3월 31일부터 전 세계 직원들에게 일괄 해고 통보를 시작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돌입
- 감원 규모는 2만~3만 명(전체 인력 16.2만 명의 약 18%)에 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80억~100억 달러의 추가 잉여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인텔(INTC.US): AI 시대 CPU 수요 회복에 베팅

- 인텔이 2024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112억 달러에 매각했던 아일랜드 렉슬립 소재 Fab 34의 49% 지분을 142억 달러에 재매입. 매입 자금은 보유 현금(2025년 12월 말 기준 약 143억 달러)과 약 6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차입으로 조달

오픈AI(비상장): 8,520억 달러 밸류에이션에 1,220억 달러 펀딩 마감

- 오픈AI가 밸류에이션 8,520억 달러에 1,22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민간 펀딩 라운드를 마감. 당초 2월에 공개한 1,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 추가되었으며, 핵심 투자자 구성은 아마존 500억 달러(이 중 350억 달러는 IPO 또는 AGI 달성 조건부), 엔비디아·소프트뱅크 각 300억 달러 수준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Code 소스코드 전량 유출

- 앤스로픽의 AI 코딩 도구 Claude Code의 전체 소스코드(약 1,900개 파일, 50만 줄)가 npm 정기 업데이트(v2.1.88) 과정에서 내부 디버깅용 파일이 패키지에 포함되는 휴먼 에러로 인해 유출됨

우주/로봇

스페이스X(비상장): SEC에 비공개 IPO 신청서 제출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SEC에 비공개(confidential) IPO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6월 상장을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
- 내부 코드명 'Project Apex'로, 목표 밸류에이션은 1.75조 달러 이상, 조달 규모는 최대 750억 달러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290억 달러)의 IPO 기록을 2배 이상 상회할 전망

우버(UBER.US): 우버-WeRide, 두바이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 개시

- 우버와 중국 자율주행 기업 WeRide가 두바이에서 안전 운전원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개시
- 양사는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무료 파일럿(안전 운전원 탑승)을 시작했고, 지난달 두바이 도로교통국(RTA)으로부터 무인 주행 시험 허가를 획득하며 유료 서비스로 전환. 우버는 SEC에 제출한 최신 공시 기준 WeRide 지분 5.82%를 보유하고 있음

스타클라우드(비상장): 시리즈 A 1.7억 달러 유치로 유니콘 등극

- YC Combinator 데모데이 17개월 만에 기업가치 11억 달러(유니콘)에 도달한 우주 컴퓨팅 스타트업 Starcloud가 Benchmark·EQT Ventures 공동 리드로 1.7억 달러 시리즈 A를 마감하며 누적 조달액 2억 달러를 기록

사이버보안

앤스로픽 신모델에 대한 문서 유출로 사이버보안 변동성 증가

- 앤스로픽의 CMS 설정 오류로 미공개 자료 약 3,000건이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스토어에 노출, 그 중에는 "Claude Mythos"라는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초안 블로그 포스트 포함.
- 앤스로픽은 이 모델이 기존 최고 성능 모델 Claude Opus 4.6을 훨씬 상회하는 새로운 티어인 'Capybara'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 발견하고 악용할 가능성을 시사
- AI가 기존 보안 벤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AI 기반 사이버 공격 속도를 기존 보안 솔루션이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유출건에 대한 뉴스가 발표된 날 사이버보안주 급락. 이후 주요 대형 보안주 중심으로 반등
- 클로드 미토스 유출건은 AI가 사이버 공격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보안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필요성 부각
- AI 기업 보안 툴이 성과를 낼 경우 기존 주요 보안업체로 향하던 보안 예산이 분산되거나 가격 압박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그러나 대형 보안 업체들의 진짜 해자는 기술력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기업의 인프라 시스템에 깊숙하게 연동되어 있고 이들 대형 보안 사업자가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AI 공격 대응력을 갖출 수 있어 AI 랩의 잠재적인 시장 진입에 대해 강력한 방어력 보유
- 특히 최근 진행된 사이버보안 주요 컨퍼런스인 RSA 2026년에서 확인된 것은 프론티어 AI 랩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채택에 대해 기업들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대형 보안 기업의 통합 솔루션에 대한 선호 유지
- 앤스로픽이나 오픈AI의 새로운 모델 발표 자체가 사이버보안 주식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헤드라인 리스크 상존
- 그러나 대표 통합 벤더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인프라 우위 속에서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표 통합 보안 업체에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상장과 아르테미스2 성공이 여는 우주산업 투자 확대 국면

스페이스X 상장 절차 본격 돌입,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

- SpaceX가 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돌입. 주당 가격과 매각 주식 수 등 세부사항은 향후 추가 서류를 통해 공개될 예정. Bloomberg에 따르면 SpaceX는 이르면 올해 6월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 평가액은 1.7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주력 사업인 발사체 서비스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매출액은 2025년 1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스타링크 가입자 급증을 바탕으로 2026년 매출액은 24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xAI 합병 기준 2026년 매출액 전망치 290~300억을 추정할 경우 IPO 목표 기업가치 1.75조 달러는 PSR 약 58배 수준.
-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당부분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 일론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테마를 주도하기 위해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용 자체칩 생산을 위한 테라팹 프로젝트와 우주 컴퓨팅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높아 실현되기까지 머스크 구상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 '역사상 가장 기대 받는' 스페이스X IPO는 우주 산업이 주류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우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

50년만의 유인 달 궤도 비행 발사 성공, 달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기업 지원 주목

- 50년만에 처음으로 인류가 지구 궤도 너머로 향하는 유인 미션 아르테미스2가 4월 1일 성공적으로 발사.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우주선이 SLS 로켓에 실려 발사 되고 8분 후 저궤도 이동 궤도에 진입. 이번 미션은 2028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4(달에 인간 착륙)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유인 우주선의 달 궤도권 작동을 검증하기 위한 미션이며 달 주위를 돌고 4월 10일 귀환하는 일정.
- 아르테미스 2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7년 아르테미스 3(지구 궤도에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이 개발 중인 달 착륙선과 랑데부 및 도킹 시험),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음. NASA는 지난 3월 24일 향후 10년에 걸쳐 달 기지 건설 계획도 공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최우선 분야 중 하나가 우주이며, 특히 유인 달착륙과 기지건설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와 민간 우주 기업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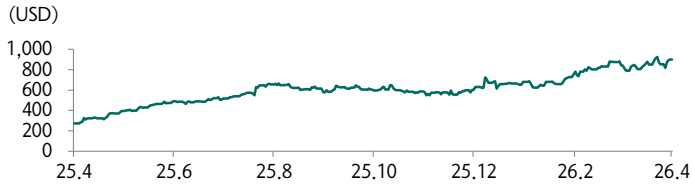
우주 Pureplay 종목 투자 관심 본격화

- 2026년은 스페이스X 상장, NASA와 미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에 미국 우주 산업의 주요 Pure-play 종목들이 글로벌 투자 대상으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 이란 전쟁 등 매크로 이슈로 변동성이 높은 점은 고려할 사항이나 향후 수년에 걸쳐 우주 산업이 막강한 투자 테마라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GE 버노바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산업재
시가총액(십억달러)
241

최근 주가 추이



분할 상장 후 2년, 신고가 지속의 비결

3월 S&P 100 편입 효력 발생

- GE 버노바 주가는 YTD +25.2%, 1년간 +168.5% 상승하며 섹터(산업재, YTD +1.3%)와 지수(S&P 500, -7.1%)를 큰 폭 상회했으며 신고가를 지속 경신
- 주가 상승 배경은 크게 3가지
- 1) 3월 23일부터 S&P 100 지수 편입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 및 인덱스펀드 자금의 유입이 증가
- 2) 3월 18일 BofA 글로벌 산업재 컨퍼런스에서 가스터빈 수요 지표 가속화와 마진 증가를 확인
- 3) 800V DC 전환을 겨냥해 하이퍼스케일러와 SST(Solid-State Transformer)를 핵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계약 가시성 높음

1Q26 Pre: 가스터빈 수주는 12~24GW

- 3월 열린 글로벌 산업재 컨퍼런스에 참여한 GEV CEO는 1Q26 수주가 12-24GW일 것으로 예상. 전년 동기(8GW) 대비 2-3배 수준
- 정식 수주는 아니나 선납 계약금을 통해 구속력이 있는 슬롯 예약 계약(SRA)은 기존 백로그 대비 10-20% 더 높은 가격으로 체결
- 연말 기준 SRA는 43GW이며 통상 6~18개월 이후 백로그로 전환
- EBITDA 마진은 2025년 15.3%에서 2028년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부 잔여물량까지 고려할 때 마진 상승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1GW 규모 데이터센터당 전력 장비 기회는 약 2~3억 달러

- 전력화는 향후에도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부로 특히 HVDC 장거리 송전 프로젝트의 백로그는 10개, 100억 달러 수준
- HVDC는 현재의 글로벌 3사 과점 체제와 시장 규모(1,000~1,500억 달러)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 300억 달러의 수주 기회
- GEV는 현재 데이터센터 1GW 규모당 전력 장비 관련 기회가 2~3억 달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SST 등이 이번 가을부터 납품을 준비하고 있어 추가 상승의 여지가 큼
- 신제품 수주 증가 효과 역시 2027년, 매출 반영은 2028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장기적인 수혜 기대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마벨에 20억 달러 지분 투자

-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MRVL)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NVLink Fusion 플랫폼을 통해 마벨의 커스텀 XPU 및 고속 네트워킹 솔루션을 자사 AI 팩토리 생태계에 통합하는 파트너십을 체결
- 이번 협력으로 마벨은 커스텀 XPU와 NVLink Fusion 호환 스케일업 네트워킹을 공급하고, 엔비디아는 Vera CPU, ConnectX NIC, BlueField DPU, Spectrum-X 스위치 등 핵심 인프라 스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춤.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컴퓨트 칩은 마벨 커스텀이더라도 그 주변 인프라 전체는 엔비디아 스택을 쓰게 되는 구조를 구상
- 양사는 실리콘 포토닉스 공동개발과 5G/6G 네트워크용 AI-RAN 인프라 협력도 병행하며, 마벨이 작년 인수한 Celestial AI의 광학 패브릭 기술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로 편입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셰브론·Engine No. 1과 70억 달러 규모 서부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독점 협상

- 마이크로소프트가 셰브론 및 행동주의 투자펀드 Engine No. 1과 서부 텍사스 퍼미안 분지 인근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 전력구매계약(offtake) 독점 협상에 진입
- 초기 발전 용량 2,500MW로 미국 내 최대급 가스발전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며, 대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에 전용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설계됨. 기존 송전망을 경유하지 않는 아일랜드형(islanded) 직접 공급 방식을 채택해 그리드 병목과 수년간의 계통 연결 대기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 핵심
- 셰브론과 Engine No. 1은 이미 작년부터 GE 버노바 터빈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인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전력 구매자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공개된 것

메타(META.US): 루이지애나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 10기 투입

- 메타가 27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Hyperion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3기에 더해 7기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 총 10기 합산 발전 용량이 약 7.5GW에 달해 사우스다코타주 전체 전력 용량을 상회하는 수준
- 에너지부(DOE) 데이터 기반 추산에 따르면 이 발전소들은 연간 약 1,240만 톤의 CO2를 배출할 전망으로, 이는 메타의 2024년 전사 탄소발자국 대비 약 50% 많은 수치

오라클(ORCL.US): AI 데이터센터 투자 재원 확보 위해 최대 3만 명 규모 대량 감원 착수

- 오라클이 3월 31일부터 전 세계 직원들에게 일괄 해고 통보를 시작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돌입
- 감원 규모는 2만~3만 명(전체 인력 16.2만 명의 약 18%)에 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80억~100억 달러의 추가 잉여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인텔(INTC.US): AI 시대 CPU 수요 회복에 베팅

- 인텔이 2024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112억 달러에 매각했던 아일랜드 렉슬립 소재 Fab 34의 49% 지분을 142억 달러에 재매입. 매입 자금은 보유 현금(2025년 12월 말 기준 약 143억 달러)과 약 6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차입으로 조달
- Fab 34는 Intel 4·Intel 3 공정으로 Core Ultra PC 프로세서와 최신 Xeon 6 서버 CPU를 생산하는 핵심 팹으로, 특히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라 범용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버 CPU가 현재 인텔의 가장 강한 수요처로 부상

오픈AI(비상장): 8,520억 달러 밸류에이션에 1,220억 달러 펀딩 마감

- 오픈AI가 밸류에이션 8,520억 달러에 1,22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민간 펀딩 라운드를 마감. 당초 2월에 공개한 1,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 추가되었으며, 핵심 투자자 구성은 아마존 500억 달러(이 중 350억 달러는 IPO 또는 AGI 달성 조건부), 엔비디아·소프트뱅크 각 300억 달러 수준
- a16z, MGX(아부다비), D.E. Shaw Ventures, TPG, T. Rowe Price, 블랙록, 블랙스톤, 피델리티, 세쿼이아, 테마섹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대거 참여했고, 은행 채널을 통한 개인투자자 참여로 약 30억 달러가 추가 유입되며 캐시 우드의 ARK ETF 편입도 예정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Code 소스코드 전량 유출

- 앤스로픽의 AI 코딩 도구 Claude Code의 전체 소스코드(약 1,900개 파일, 50만 줄)가 npm 정기 업데이트(v2.1.88) 과정에서 내부 디버깅용 파일이 패키지에 포함되는 휴먼 에러로 인해 유출됨
- 구체적으로 세션 간 학습 전이가 가능한 메모리 아키텍처, 사용자 유휴 시에도 백그라운드에서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데몬 모드, 멀티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원격 제어 기능 등 앤스로픽의 에이전틱 AI 로드맵이 사실상 전면 노출

우주/로봇

스페이스X(비상장): SEC에 비공개 IPO 신청서 제출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SEC에 비공개(confidential) IPO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6월 상장을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
- 내부 코드명 'Project Apex'로, 목표 밸류에이션은 1.75조 달러 이상, 조달 규모는 최대 750억 달러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290억 달러)의 IPO 기록을 2배 이상 상회할 전망
-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가 시니어 언더라이터로 참여하고, 총 21개 은행이 딜을 관리하는 이례적 규모의 신디케이트가 구성

우버(UBER.US): 우버-WeRide, 두바이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 개시

- 우버와 중국 자율주행 기업 WeRide가 두바이에서 안전 운전원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개시
- 양사는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무료 파일럿(안전 운전원 탑승)을 시작했고, 지난달 두바이 도로교통국(RTA)으로부터 무인 주행 시험 허가를 획득하며 유료 서비스로 전환. 우버는 SEC에 제출한 최신 공시 기준 WeRide 지분 5.82%를 보유하고 있음

스타클라우드(비상장): 시리즈 A 1.7억 달러 유치로 유니콘 등극

- YC Combinator 데모데이 17개월 만에 기업가치 11억 달러(유니콘)에 도달한 우주 컴퓨팅 스타트업 Starcloud가 Benchmark·EQT Ventures 공동 리드로 1.7억 달러 시리즈 A를 마감하며 누적 조달액 2억 달러를 기록
- 2025년 11월 엔비디아 H100 GPU 탑재 첫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서 AI 모델 학습 및 Gemini 구동에 성공한 바 있으며(궤도 내 지상급 GPU 배치 최초 사례), 올해 엔비디아 Blackwell 칩과 AWS 서버 블레이드,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를 탑재한 Starcloud 2를 발사 예정
- 스페이스X의 스타십에서 스타링크 방식의 '페즈 디스펜서' 배치를 활용해 발사할 200kW급·3톤 규모의 Starcloud 3 데이터센터 우주선 개발로, CEO 필립 존스턴은 발사 비용이 kg당 5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kWh당 0.05달러로 지상 데이터센터와 비용 경쟁이 가능하다고 전망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4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